

제7장 — 어둠이 먼저 달는 곳

왕궁의 마지막 불빛이 등을 떠나갈수록, 세상은 소리부터 달라졌다.

돌바닥을 밟는 발소리는 더 작아졌고, 숨은 더 얇아졌으며, 옷자락이 스치는 마찰음마저 신경을 긁었다.

밤은 늘 어둡지만, 임무의 밤은 다르다. 임무의 밤은 어둠이 아니라 **빈틈**이다. 모든 것이 비어 있고, 그 비어 있음 속에 누군가의 의도와 누군가의 칼날이 먼저 채워진다.

그래서 당신은 걸으면서 계속 손을 확인하게 된다. 칼자루를 “잡는지”, “쥐는지”. 몸이 불필요하게 긴장해 손목을 굳히지는 않았는지. 발끝이 바닥을 긁어 소리를 만들지는 않았는지.

옆을 걷는 남성 단원 둘은 말을 아꼈다. 평소 같았으면 가볍게 투덜거릴 만한 사람들인데, 오늘은 그 투덜거림마저 삼킨 채로 어둠에 맞춰 숨을 접고 있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말이 없는 건 상황이 단순해서가 아니라, 말이 필요 없을 만큼 모두가 같은 걸 느끼고 있다는 뜻이니까.

“젠장… 바람이 이상해.”

앞서가던 단원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욕이 거칠게 튀어나오지 않는 건, 그가 배려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욕조차 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른 단원이 어깨를 한 번 굴리며 답했다.

“바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냄새가 이상하지.”

당신도 느꼈다. 항구의 소금 냄새와 달랐다. 축축한 금속 냄새, 마른 잉크 냄새, 그리고 그 밑바닥에 얇게 깔린—어딘가 비어 있는 향. 정확히 말하면 “향”이 아니다.

향이 나야 할 자리에 향이 없어서나는 느낌. 왕궁에서 바닷물이 흘러야 할 자리에 물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이 냄새는 “부재”가 남긴 흔적이었다.

달의 왕국.

lucet luna aeternitatis(빛나는 영원의 달).

그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아도, 어둠은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세 사람은 왕궁 외곽의 낮은 담장을 따라 이동했다. 수로 소리는 어느새 사라졌고, 대신 땅의 냄새가 올라왔다. 흙, 젖은 풀, 낮은 돌의 냉기. 바다의 왕국 바깥은 바다의 리듬이 약해진다.

그 약해짐이 당신에게는 불안으로 다가왔다. 바다의 축복이 당신을 치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바다의 축복이 “버티게” 해준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바다의 리듬이 얇아지는 곳에서는, 버팀목도 얇아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뒤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떠올랐다.

리네의 얼굴.

오늘 하루, 그 조용한 산책.

연못의 수면처럼 얇게 흔들리던 침묵.

식탁에서 서로의 호흡이 맞아들던 순간.

그 모든 게 “연애” 같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연애와 거리가 멀었다. 다정한 말도, 손을 잡는 장면도 없었다. 그런데도 당신은 오늘이 이상하게 오래 남을 걸 안다. 리네가 말수는 적어도,

“함께 있는 시간”을 선택한 방식이, 너무 조용해서 더 강했으니까.

그리고 그 조용함이 지금, 발목을 잡는 느낌이 들었다.

지킬 것이 생기면 전장은 잔인해진다.

그 말이 이제는 문장이 아니라 감각이다.

목표 지점은 왕궁 외곽 교역도시로 이어지는 작은 도로의 중간, 오래된 교역 창고였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평범한 상단의 임시 보관소. 그러나 기록관이 잡아낸 숫자들은 너무 매끄러웠고, 흐름은 지나치게 아름다웠다.

아름다운 흐름은 대개 누군가의 손이 닿아 있다. 바다의 흐름이 아니라, 달의 흐름.

창고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단원 둘이 속도를 더 줄였다.

“여기서부터는… 숨도 아껴.”

한 단원이 낮게 말했다.

“알아.”

다른 단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당신을 힐끔 보았다가 시선을 돌리는 게 느껴졌다. 짧은 시선, 비켜가는 시선. 첫만남부터 쌓이기 시작했던 그 미묘한 거리감이, 이 어둠 속에서는 더 또렷했다. 그런데도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묻는 건 의미가 없다. 묻는 순간, 그들이 가진 불편함이 형태를 갖게 되고, 형태를 가진 불편함은 돌이키기 어렵다.

“들어가서 네가 먼저 확인해.”

그가 말했다. “네가… 소리 제일 적게 내잖아.”

칭찬 같으면서도, 어딘가 달랐다.

“네가 제일 조용해.”

그 말은 뒷골목에서도 들어본 적 있는 말이었다. 조용한 놈이 제일 위험하다고, 조용한 놈이 제일 먼저 칼을 뽑는다고.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몸을 낮추고, 창고의 외벽을 따라 움직였다. 손바닥은 이미 굳은살로 단단했지만, 그 단단함 안쪽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다.

그 균열이 지금은 유난히 의식됐다. 불안이 피부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면, 평소에는 느끼지 않던 작은 것들이 크게 느껴진다.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번에도 규칙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교묘했다.

발자국이 “있어야 할 자리”에만 있었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시선이 갈 법한 곳에만 발자국을 남겨 둔 것처럼.

미끼.

당신은 숨을 더 낮추고, 발자국이 없는 쪽으로 몸을 옮겼다. 창고의 문은 잠겨 있었다. 정문은 건드리지 않는다. 정문은 늘 함정이다. 당신은 측면으로 돌아 통풍구를 찾았다.

작은 틈, 오래된 나무판이 조금 들린 자리. 손끝을 넣자 나무가 아주 약하게 들썩였다.

그 순간, 단원 중 한 명이 뒤에서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뭐가.”

“너무… 조용해.”

당신도 그걸 느꼈다. 창고 주변이 조용한 게 아니라,
“소리가 빠져 있는” 조용함이었다.

벌레 소리도, 멀리서 들려야 할 물소리도,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도 얹었다. 마치 세상이 한 번 숨을 참은 상태처럼.

달의 왕국이 공간을 만질 때, 종종 이런 식이다.

현실이 현실답지 않게 얹어진다.

당신은 그 얹어짐을 억지로 무시했다.

무시가 아니라, 포함. 훈련장에서 배운 방식이다.

통풍구를 열고 몸을 밀어 넣었다.

안쪽은 어둡고 차가웠다.

냄새가 더욱 선명해졌다.

잉크, 금속, 그리고… 아주 희미한 향.

향수 같은 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기억”의 냄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신은 뒷골목에서 비슷한 걸 맡아본 적이 있다. 사람들이 한순간에 표정을 바꿀 때,

“상황이 바뀌었다”는 냄새. 피가 나기 전에 먼저 맡는 냄새.

당신은 천천히 기어 내려갔다.
바닥에 닿자 무릎이 따끔했다.

상처가 다시 벌어졌다. 천이 살에 달라붙었다가 움직일 때마다 뜯겼다. 숨이 흔들릴 뻔했지만, 당신은 숨을 접었다.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흔들리면 손이 흔들리고, 손이 흔들리면 칼이 흔들린다.

소리가 들렸다.

속삭임.

아니—속삭임인 척하는 말.

“시간이 맞아.”

“그래. 바다는…”

“바다는 이미 늦었어.”

목소리 둘.

그리고… 하나 더. 아주 낮고, 거의 들리지 않는 웃음 같은 기척.

당신은 한 박자 더 멈춰 서서 귀를 기울였다.
그 짧은 멈춤이, 어쩐지 오래처럼 느껴졌다.
뒷골목 출신인 당신은 안다.

멈추는 순간, 상대가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하지만 지금은, 더 듣고 싶었다. 듣는 게 곧 살아남
음이니까.

“공주는 그 녀석을 아껴.”

“그게 문제야.”

“그럼... 아끼는 것부터 끝자.”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에 차갑게 박혔다.

리네.

당신은 순간적으로 손에 힘이 들어갈 뻔했다.

잡는 힘.

빼앗는 힘.

그때 교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잡지 마. 쥐어.

당신은 이를 악물고 손목을 풀었다. 쥐었다. 오래 버
티기 위한 방식으로. 감정이 칼을 움직이게 두지 않
기 위한 방식으로.

그리고 움직였다.

첫 번째 목표는 검은 문양의 반지를 낀 남자였다.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웠다. 자연스럽다는 건, 여기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도록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즉 외부자. 달의 왕국 쪽일 가능성이 높다.

당신은 그의 뒤로 미끄러지듯 접근했다. 발끝이 바닥을 긁지 않게, 무릎을 거의 쓰지 않고, 체중을 분산시키며. 훈련장에서 몸이 망가지는 만큼 배운 것이 있다면, 그건 몸을 조용히 쓰는 법이다. 몸이 조용해지면 마음도 조용해진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칼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뒤에서 손을 뻗었다.

입을 막는 순간, 손바닥의 상처가 그의 입술에 닿았다. 살이 뜯기는 듯 따가웠다. 그 따가움이, 이상하게도 정신을 더 맑게 만들었다. 현실이다. 지금은 생각이 아니라 결과다.

경동맥을 눌렀다.

그는 바로 쓰러지지 않았다. 몸이 반항했다. 팔꿈치가 당신의 갈비뼈를 쳤다. 숨이 흔들릴 뻔했다.

그때 당신은 힘을 더 주지 않았다. 더 주면 흔들린다. 흔들리면 소리가 난다. 당신은 “확정”만 유지했다. 버티는 힘. 쥐는 힘.
몇 초가 길게 늘어났다.
그의 몸에서 힘이 빠졌다.
무게가 갑자기 내려앉았다.

당신은 조심스럽게 그를 바닥에 눕혔다. 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곳의 침묵이 너무 얇아서 소리가 날 것 같아서였다.
두 번째 목표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이 당신을 봤다.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달았다.
당신이 먼저였던 게 아니다.
당신은 이미 **예상된 움직임**이었다.
“거기야.”

그가 아주 낮게 말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본 장면처럼,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뒷골목의 감각이 소리쳤다.
늦었다.

당신은 즉시 무릎을 쳤다. 중심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는 넘어졌다. 하지만 넘어지는 순간에도 그의 손
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허리, 주머니,
그리고-

빛.

보라빛이 아주 얇게 번졌다.

불꽃처럼 튀지 않았다.

달빛처럼-조용히 번졌다.

공간이 한 박자 느려졌다.

당신은 그 느려짐을 “느낀다.” 느낀다는 건, 이미 물
린 것이다. 달의 축복은 칼처럼 베지 않는다. 대신
가능성을 비틀어, 네가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쪽으
로 현실을 기울인다. 그래서 달과 싸우는 건,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현실의 경사를 거슬러 달리는 일
이다.

“젠장!”

밖에서 단원이 낮게 욱했다.

그들도 느낀 것이다. 공간이 얇아지는 기척을.

당신은 칼을 휘둘렀다. 깊게 넣지 않았다. 정확하게.
움직임만 끊는다. 그러나 칼끝은 어딘가 미세하게
빛나갔다.

겨우 몇 손가락 정도의 오차. 하지만 전장에서 그
몇 손가락은, 사람 하나의 목숨을 바꾼다.

상대는 웃었다.

그 웃음은 크게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소리 없는 웃음이었다.

그게 더 끔찍했다.

“바다는… 늘 이렇게 오지.”

그가 말했다.

“늦게.”

당신은 이를 악물고 다시 칼을 쥐었다.

잡지 않는다. 쥘다.

이 순간, 감정이 올라오면 칼이 흔들린다. 흔들리면
죽는다.

무릎에 힘을 주고, 몸을 낮춰, 다시 찔렀다.

이번엔 들어갔다.

감각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달빛이 한 번 더 번졌다. 이번엔 아주 얇게, 마치 유
리 위를 스치는 손가락처럼. 그리고 당신의 발끝이
미끄러졌다.

바닥이 젖어 있지 않은데도, 미끄러졌다.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달의 왕국과 싸울 때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 더 자주 일어난다.
당신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상처가 벌어졌다.
피가 흠과 섞였다.

그 순간, 당신은 잠깐 떠올랐다.
오늘 낮, 리네가 훈련을 지켜보던 눈빛.
평가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보는 시선.
그 시선이 지금 여기에 없는 게—
이상하게 아팠다.
“일어나!”
밖에서 단원이 낮게 외쳤다.
그 목소리에는 당황이 섞여 있었다.

당신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그러나 공간이 계속 느렸다.
아니, 당신만 느린 걸지도 모른다.
그때, 뒤쪽에서 세 번째 기척이 움직였다.
처음부터 있던—
그 ‘거의 들리지 않는 웃음 같은 기척’.
누군가가 아주 조용히 손뼉을 쳤다.

박수가 아니라, 확인처럼.

“좋아.”

짧은 한마디.

그 목소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듯했다. 아니, 그런 구분이 의미 없는 목소리였다. 감정이 얇고, 말이 매끄럽고, 무엇보다—미래를 너무 많이 본 사람같은 목소리.

당신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임무는, 연결 고리를 끊는 일이 아니었다.

이 임무는—당신을 시험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시험은 대개,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다.

“철수!”

밖의 단원이 낮게 말했다.

“이거… 꼬였어! 미친, 이거 진짜—”

“입 다물어!”

다른 단원이 잘랐다.

“소리 나!”

그 짧은 실랑이에서 당신은 한 가지를 읽었다.

그들도 무서워하고 있다.

하지만 그 무서움은 ‘죽을까 봐’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아는 전투가 아닐까 봐’에 가깝다.
당신은 이를 악물었다.
철수하면, 실패다.
실패하면, 다음은 왕궁이다.
다음은 리네다.

리네가 창가에서 말했던 문장이 떠올랐다.
이 평온함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 평온함을 끝내는 쪽이
내가 되는 건 안 된다.
“아직—”

당신이 말하려는 순간, 목소리가 목 안쪽에서 걸렸
다. 말투를 고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이런 순간엔
잔인하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이 가장 ‘나’다운지,
세상에 맡겨진 그 빈칸이, 소리가 되어 나오지 못한
의지가 현실에서는 한 박자 늦음을 만든다.
그 늦음이 치명적일 수 있다.
당신은 말을 접고, 몸으로 대답하기로 했다.

칼을 쥐었다.
잡지 않는다. 전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상대는 다시 달빛을 번지게 했다.
공간이 얇아졌고, 발끝 감각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번엔, 당신이 먼저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오기로.

완벽한 자신감이 아니라,
완벽한 판단이 아니라,
그저—부서지기 싫다는 오기로.
당신은 상대의 손을 노렸다. 반지가 있는 손. 달빛이
스며드는 지점. 그 지점을 끊으면, 현실의 경사를 조
금이나마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칼끝이 스쳤다.

피가 튀었다.
상대가 숨을 들이켰다.
그 순간, 당신은 확신했다.
될 수 있다.
그런데—
뒤에서, 다른 방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보라빛이 한 번 더 번졌다.

더 조용하게. 더 얇게.
그리고 더 깊게.
당신의 시야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아주 잠깐.
정말 찰나.
하지만 찰나는 전장에서 사람을 죽인다.
그 찰나 사이에 상대가 웃었다.
“그게 네 한계야.”
짧은 문장.

그리고 당신은 깨달았다.
당신이 지금 싸우는 건 사람의 칼이 아니다.
당신이 지금 싸우는 건-가능성 자체다.
무력감이 올라왔다.
몸이 아니라, 마음의 뿌리에서부터.
내가 아무리 버텨도,

이 세계가 나를 실패 쪽으로 기울인다면
나는 결국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가.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당신은 더 강하게 칼을 쥐었다.
잡지 않았다.
쥐었다.

버티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느꼈다.

‘찢다’는 건 단지 기술이 아니다.

‘찢다’는 건-내가 무너질 걸 알면서도 한 번 더 서는 일이다.

밖에서 단원이 당신의 팔을 잡아끌었다.

“젠장, 철수해! 이거 함정이야!”

거친 말투. 짧은 욕. 현실적인 공포.

그 모든 게 이제서야 당신의 귀에 제대로 들어왔다.

당신은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 박자 늦음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세 사람은 어둠 속으로 뒤로 빠졌다.

창고 밖의 밤공기는 더 차가웠다.

숨을 들이키자 폐가 아렸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당신은 계속 창고 안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 마지막 목소리.

미래를 너무 많이 본 사람 같은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말했던 것.

“아끼는 것부터 끊자.”

리네.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 무게가 너무 분명해서,

숨이 얇아졌다.

“괜찮아?”

옆 단원이 물었다.

말투는 거칠었지만, 그 거칠음이 오히려 진심처럼 느껴졌다.

당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시 손을 확인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지.

잡고 있는지.

손목이 굳어 있지 않은지.

그런데 당신은 알았다.

이미 조금 굳기 시작했다는 걸.

오늘의 찰나가, 오늘의 무력감이,

조금씩 손목을 굳게 만든다는 걸.

망가짐은 한 번에 오지 않는다.

망가짐은 이렇게—

아주 작은 균열로 시작된다.

세 사람은 도시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왕궁으로 돌아가기엔 아직 이르다.
보고를 하기엔, 너무 많은 게 비어 있다.
임무는 실패했다.
완전한 패배는 아니었다.
죽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게 더 잔인했다.

살아남았다는 건,
다음이 있다는 뜻이니까.
당신은 어둠 속에서 문득, 아주 짧게 생각했다.
오늘 낮의 왕궁.
연못의 수면.
리네의 침묵.
인어의 느린 눈 깜빡임.
그 평온함이 너무 선명해서—
그래서 더 무서웠다.

이 평온함을, 내가 깨뜨릴지도 모른다는 게.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에게 오기를 걸었다.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돌아간다.
반드시… 리네에게.

그 오기가, 오늘 밤의 무력감보다 더 큰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달빛의 그림자는

이미 당신의 발목에 닿아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